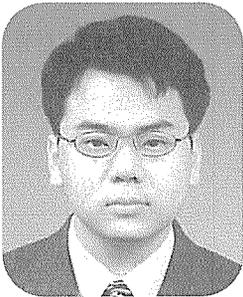


따라서 배우는 인터넷 이야기 (10)

홈페이지 어떻게 만들까?



글/류지창

INTER
NET

최근 컴퓨터 서적계의 베스트 셀러 목록을 살펴보다보면 보이지 않게 홈페이지 만들기 열풍이 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책 제목에 “홈페이지 만들기”란 말이 들어가 있는 책들이 5-6개월간 베스트 셀러 10가지중 2-3개씩 포함되고 있고, 홈페이지 만들기에 필요한 그래픽 디자인 관련 책들이 또 그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웹사이트 운영이 기업에게 필수인 것으로 자리잡은 것과 동시에 인터넷에 자기만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네티즌들의 ‘선택’에서 ‘필수’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달에는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그리고 보다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일단,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여러분이 직접 만든 홈페이지 내용이고, 둘째는 이 홈페이지 내용을 보관해줄 인터넷

상의 컴퓨터이다. 특히 최근에는 무료로 홈페이지 내용을 보관해주는 곳들이 늘어나면서 홈페이지 만들기 열풍이 더 거세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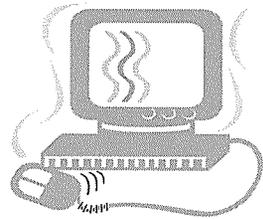
먼저 홈페이지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예전에는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라는 문법을 배워야 했다.

이 문법에 맞추어 글자와 그림을 넣은 문서를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이 문법에 맞추어 만든 문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면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에서 View 혹은 보기 메뉴 아래에 있는 HTML 보기 혹은 Page Source보기를 선택하면 된다. 아마도 다시는 쳐다보기조차 싫을 정도로 복잡한 내용이 모니터에 출력될 것이다.

이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이해해야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옛날에는...

하지만 최근에는 이 HTML문



서를 쉽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이 무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홈페이지 내용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워드프로세서이며 하나는 HTML 작성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들이다.

워드 프로세서란 일반적으로 문서작성에 쓰는 바로 그 워드 프로세서를 말한다. 특히 많이 사용되는 두 개의 프로그램인 한글과컴퓨터사의 한글97(혹은 한글815)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Word는 문서를 HTML 형태로 저장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일반적인 문서로 홈페이지 내용을 입력한 뒤에 저장할 때 "새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고 파일 형식을 HTML 파일로 저장하면 복잡한 HTML 문법에 맞추어 워드프로세서가 알아서 HTML 파일로 저장을 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다. 특히 홈페이지 만들기 초보자들에게 권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종류는 HTML 만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다. 사용 방법은 일반 워드프로세서와 다른 점이다.

이런 프로그램들로는 유명한 것들이 국내에서 개발된 나모 웹에디터, 그리고 Netscape Communicator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함께 설치되는 Netscape Composer,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함

께 설치되는 Frontpage Express 등이 있다. 이중 나모 웹에디터는 상용 소프트웨어 이므로 구입을 해야하며 나머지 두 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세가지 모두 비슷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상용인만큼 나모 웹에디터의 기능이 훌륭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사용이 편리하다"는 것이 장점인 만큼 워드프로세서를 다루는 정도의 기술로 홈페이지 내용을 만들 수 있다.

홈페이지 넣을 내용을 다 만들었으면 이 내용을 보관해주는 곳을 찾아야 한다.

국내의 경우 천리안 등의 PC 통신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무료로 홈페이지 내용을 보관해주는 곳이 많으므로 별도의 비용 없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PC통신업체에 문의해 보면 홈페이지 만들기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 홈페이지 운영이 안되는 경우에는 무료로 홈페이지를 보관해 주는 곳을 이용하면 된다.

네띠앙(<http://www.netian.com/>)이 추천할 만한 곳이다. 이 곳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홈페이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하나로 통신에서 주주들에게 무료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등 홈페이지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그래서 HTML 문서를 만들 프로그램을 구했고, 또한 홈페이지 내용을 보관해 주는 곳을 찾았다면, 다음에는 서점에 나가서 홈페이지 만들기에 대한 책을 한권 사는 것이 좋다. "쉽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참고해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다.

책을 보면서 처음에는 간단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며 점차 점차 예쁜집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순서이다.

처음부터 남들 처럼 잘 하려고 한다면 힘만들고 재미도 없을 뿐이다. 그리고 남들이 만들어둔 홈페이지를 많이 다녀보는 것도 홈페이지 만들기에 대한 안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적극 추천하는 방법이다. 심마니(<http://www.simmani.com/>)에 접속한 후 첫 화면에서 "개인 홈페이지"란 글자를 클릭하면 국내에 개설된 많은 사람들의 홈페이지를 만나볼 수 있다. 한 두 곳씩 다니면서 안목을 높이면 자신의 홈페이지도 예쁘게 꾸밀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홈페이지를 만든 뒤에는 반드시 자신의 명함에도 홈페이지 주소를 한번 넣어서 인쇄해 보기를 권한다. 남들에게 정보시대를 앞서 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다.